

매쿼리 배불리는 광주순환도로 재협상·공익처분 끌어낼까

주목할 만한 국감 2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지역 현안 사업 관련, 질타와 대안 제시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주로 예정된 광주시정에 대한 국정감사는 실패한 협상으로 손꼽히는 '매쿼리 국감'이 될 전망이다. 여수·광양 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수항 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여수항과 여수세계박람회장을 해양관광의 메카로 만드는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일보가 연속보도(2018년 12월 3일~2019년 3월 5일)하며 감사원 감사를 이끌어낸 광주시와 매쿼리한국인프라투자자(이하 매쿼리) 간 불합리한 광주순환도로 재협상 문제가 오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광주시청 국정감사에서는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6조와 47조, 그리고 유료도로법 23조5항'에 근거해 재협상이나 공익처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것으로 보여 향후 공익처분 여부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 국회의원은 18일 "광주시와 매쿼리 간 사업재구조화의 의미는 사업구조 변경을 통해 비용절감 및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낮추는 방안으로 바뀌어 광주시의 재정지원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사업변경 협

22일 광주시 국정감사

실패한 협상 집중 거론

투자금 부풀리기·상고 포기

법인세 덤터기 등 질타

상 과정에서 매쿼리 측의 이익을 대변한 브로커의 농간에 철저히 당한 실패한 협상이다"고 평가했다.

또 "매쿼리측 자문을 맡은 황모씨의 부탁으로 윤장현 전 시장에게 5000억원 절감을 제시했던 회계 전문가(대구 협상 성공 이끈 전 대구시 감사관)를 배제하고, 매쿼리가 협상단을 완벽하게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만들었으며 브로커 김모씨를 활용해 매쿼리를 위한 협상 결과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증단의 의견을 무시하고 매쿼리 수의 챙기기로 변질된 협상이며, 투자 수익률과 과다 책정, 투자금액 부풀리기, 법인세 덤터기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1·2심 승소 후 상고 포기 이유도 거짓 변명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투자수익률(9.8%) 과다 책정 ▲투자금액 부풀리기 ▲시행사 부담 무법인세의 광주시 대납 ▲1000억원 절감 효과의 허구성 ▲1·2심 승소에도 대법원 상고포기 이유 일부 거짓 등 5가지 쟁점을 광주시 국감에서 집중 질타 할 예정이다.

그는 또 "광주시가 (협상을 통해) 1014억원 절감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세 절감 효과를 제외하면 700억원이며, 광주시가 불필요한 법인세를 부담하면서 재정절감에 대한 착시효과를 일으켜 시민을 호도했다"면서 "높은 이자로 매쿼리 이자수익은 증가하는데 법인세 감소효과를 재정절감액에 반영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광주시는 시행사가 세무당국과 소송에 이겨 환급받은 법인세 112억원을 돌려받지 않고 방치하다 감사원에 적발됐고, 이 또한 30%는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했다"면서 "관련 법에 따라 광주순환도로는 재협상이나 공익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쿼리는 2001년과 2004년 제2순환도로 1구간을 28년간, 3-1구간을 30년간 관리·운영하기로 광주시와 협약을 맺었다. 도로 개통 시 추정 통행량을 과다 설정하고, 실제 통행량이 그 85%에 미달하면 광주시가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광주시는 해마다 재정을 보충해줘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선 5기 들어서는 매쿼리에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하게 맞서기도 했지만, 민선 6기에서는 돌연 소송을 포기하고 협상에 응해 2016년 말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1014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시의 설명과는 달리 1구간에서의 매쿼리 수익은 2018년 오히려 477억원으로 급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불합리한 협상'으로 일컬어지는 광주시와 매쿼리한국인프라투자자간 광주순환도로 재협상 문제가 오는 22일로 예정된 광주시청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제2순환도로 소태요금소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주철현 의원 "여수항·세계박람회장 거점 해양관광 메카 만들어야"

"항만공사 국감서 적극 제기할 것"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이 2023년 여수항 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여수항과 여수세계박람회장을 향한 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 남해안 거점 해양관광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주 의원에 따르면 여수·광양 항만공사 출범(2011년) 이후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여수에 있는 구 삼일항과 여수항에서 전체 매출액의 34%인 2890억원을 벌여

들었지만 실질 투자액은 전체의 9%인 204억원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그동안 광양 컨테이너 터미널 확장 중심의 투자만 펼쳐오면서 여수항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주 의원은 여수가 남해안 관광의 거점 도시로 자리를 확실히 잡은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 여수항은 물론 여수세계박람회장을 해양 관광의 메카로 만드는 대규모 항만 재개발 프로젝트를 띄워야 한다는 입

장이다. 또 여천의 삼일항이 지난 1986년 광양항에 편입된 상황인 만큼 여수항과 광양항을 통합, 평택·당진항처럼 여수·광양항으로 항만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광양 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여수항과 여수 세계박람회장을 해양 관광의 메카로 육성하는 새로운 브랜드 비전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대선후보 선호도 이재명 20%·이낙연 17% 호남·민주당 지지층서도 격차 크게 좁혀져

한국갤럽 여론조사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20%대가 무너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호남에서의 이 대표 지지율은 40%대가 깨졌다. 반면, 강력한 경쟁 상대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6일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로 '정치적 족쇄'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지지율 1위 자리를 꿰차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 발표한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20%로 1위를 기록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7%로 2위로 집계됐다. 이 지사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지난 8월 이후 오차범위 내지만 3개월 연속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주목할 대목은 이 대표의 20%대 지지율

이 무너졌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24%, 8월 19%, 9월 21% 등 평균 20%대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10월엔 17%로 하락했다. 정치권에선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이 대표와 이 지사가 접전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의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 대표는 36%, 이 지사는 31%를 기록했다. 지난 2월 조사에서 이 대표가 52%의 압도적 지지를 확보하고 이 지사가 4%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놀랄 만한 변화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이 지사에 대한 당내 친문(친 문재인) 당원들의 거부감이 크다는 점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상당히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실제로 이 대표는 그동안 친문의 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지지 기반 다지기에 주력한 반면 이 지사는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선명성 있는 발언과 차별화된 정책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장 점검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8일 인천 연수구 셀트리온 2공장 연구소를 방문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내세우며 대중적 지지도도 끌어 올려왔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당원 등 민주당 지지층이 정치적 성향에 따른 '호불호'보다는 본능 경쟁력으로 지지를 결정하겠다는 흐름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호남 지지율 40%대가 깨졌다는 점도 의미가 작지 않다. 이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호남에서 36%의 지지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반면, 이 지사는 호남에서 16%의 지지율을 확보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호남에서 최소 40%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전남 출신에,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남도지사를 지낸 이 대표 입장에선 뼈아픈 지점이다. 호남 민심이 지역 출신이라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역 출신보다는 정권 창출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가 호남 민심과 시대적 가치에 부합하는 메시지와 비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당 내외의 '이낙연 사단'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판도 크다. 불확실한 대선론에 기대어 판을 너무 쉽게 보고 있으며 '이낙연 대통령'을 만들어 내려는 절실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이 대표가 시대에 맞는 적극적인 변화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국무총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들이 있다. 당 대표로서 관리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하고 있지만 정치적 리더로서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방향과 이슈를 제시하

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각종 현안에 대한 보다 빠른 대응과 시대를 움켜잡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의 혼이 담긴 비전과 이슈 파이팅을 통해 과감한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2020년 공익광고 지원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실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한자리처럼 보여도 2명을 위한 자리입니다.

한 번의 배려가 두 사람을 미소짓게 합니다.

